

LG전자, 1분기 매출·영업이익 역대 최대...가전TV 덕에 날았다

LG전자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의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영업이익은 12년 만에 최대치다.

LG전자는 올해 1분기 매출 18조 8095억원, 영업이익 1조 5166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7.7%, 39.1% 늘었다. 영업이익률은 역대 1분기 가운데 가장 높은 8.1%다.

기존 분기 매출 최대치는 지난해 4분기 18조 7808억원이었다. 분기 영업이익 최대치는 지난 2009년 2분기에 달했던 1조 2438억원이었다.

이번 '깜짝 실적'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TV·오브제 컬렉션과 같은 프리미엄 가전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등 TV·생활가전 사업이 견인했다. 특히 생활가전을 담당하는 H&A사업부는 올 1분기 영업이익이 9000억원을 돌파했다. 1분기에 생활가전 매출이 6조 2000억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사업본부별 실적을 살펴보면, H&A 사업부는 매출액 6조 7081억원, 영업이익 9199억원을 달성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모두 분기 사상 최대다. 사업본부 기준 분기 영업이익이 9000억원을 넘는 건 이번 1분기 H&A

매출액 18조 8095억원·영업이익 1조 5166억원 달성

각각 분기 사상 최대, 전년대비 27.7%·39.1% 증가

생활가전 사업부 매출·영업이익 모두 분기 사상 최대

사업철수하는 모바일 사업부, 1분기 2801억 영업손실

사업본부가 처음이다.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1분기 13.9%에 이어 분기 사상 역대 두 번째인 13.7%다.

매출액은 국내외 해외에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다. 건조기, 스타일러, 식기세척기 등 스마트가전의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공간 인터리어 가전인 LG 오브제 컬렉션의 인기가 꾸준히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이상 늘었다.

글로벌 모든 지역에서 고르게 매출이 증가하는 동시에 신가전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확대와 렌탈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힘입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1% 증가했다.

TV를 담당하는 HE사업부는 매출액 4조 8202억원, 영업이익 40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4.9%, 23.9%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10%를 넘었다.

북미,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TV 수요가 회복됨에 따라 올레드 TV, 나노셀 TV,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인기 덕분에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조 원 이상이 늘었다. 특히 1분기 올레드 TV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이다.

영업이익은 LCD 패널가격이 크게 상승했지만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 확대와 투입 자원의 효율적인 집행으로 11분기 만에 4000억원을 넘었다.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부는 매출액 9987억원, 영업손실 2801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와 비슷한 수준이나 글로벌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영업 손실은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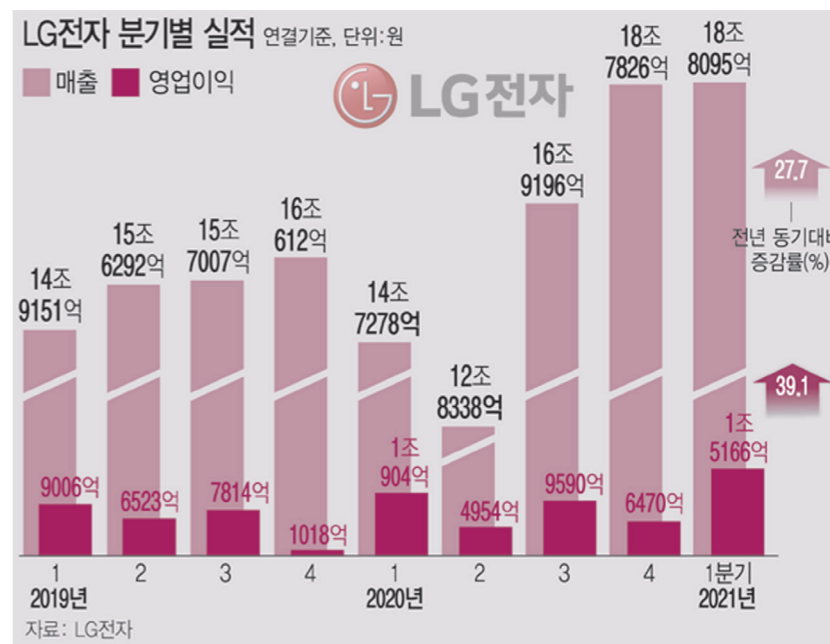
VS(전장)사업부는 매출액 1조 8935억원, 영업손실 7억원을 기록했

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3.5% 늘었다. 매출액은 북미, 유럽 등 주요 완성차 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전기차 파워트레인과 인포테인먼트 분야의 신규 프로젝트가 늘어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했다.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업체인 마그나와 함께 설립하는 합작법인 엘지마그나 이파워트레인(가칭)은 올 7월 1일자로 출범할 예정이다. BS사업부는 매출액 1조 8643억원, 영업이익 1340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분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LG전자는 생활가전, TV 등 주력사업의 시장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고 자동차 부품·솔루션, 인공지능, B2B(기업간 거래)사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늘고 순이익구조도 효율적인 자원 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것으로 회사측은 내다봤다. H&A사업부는 시장 변화에 적기 대응하고 현지화 전략을 강화해 매출 상승세를 유지하고 사업 운영을 최적화해 수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TV 시장은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고 큰 화면으로 고해상도 콘텐츠를 즐기려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프리미엄 TV를 찾는 고객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HE사업부는 올레드 TV, 나노셀 TV, 초대형 TV 등 프리미엄 제품의 판매 비중을 확대해 매출을 늘리고 수익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LG전자는 오는 7월 말 휴대폰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 MC사업본부 실적은 2분기부터 영업이익에 반영되지 않고 중단영업손실로 처리한다.

VS사업부는 완성차 시장의 회복세에 적극 대응해 매출을 극대화하고 원가 절감과 공급망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 수익성을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비대면 트렌드가 이어지면서 IT 제품의 수요는 지속되고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시장도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LCD 패널가격 상승과 부품 공급 이슈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BS사업부는 경쟁력을 갖춘 PC, 모니터 등 전자 제품에 집중하면서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솔루션을 버티컬(Vertical, 특정 고객군)마다 최적화해 사업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선욱기자



가정의 달, 한우 농가 시원하게 쓰겠습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와 전국한우협회, 농협경제지주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29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한우 고기 할인 판매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근마켓서 이제 전화도 됩니다”...050 안심번호

개인 전화번호 없이 통화 돼

당근마켓은 개인 전화번호 공유 없이 이웃 간 통화 기능을 추가했다고 29일 밝혔다. 채팅에서 설정한 '거래 약속' 한 시간 전후로 사용할 수 있는 통화 기능이다.

당근채팅 통화 기능을 이용하면 상대방이 채팅 메시지를 확인하지 않아도 연락할 수 있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약속 시간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사람이 많은 공공 장소에서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려울 때, 직거래 후 건네 받은 물건에 대한 발 빠른 문의와 응답이 필요한 경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개인정보 노출 없이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당근채팅 통화는 '050'로 시작되는 가상의 안심번호로 연결돼 개인 전화번호 없이도 통화할 수 있다. 또한 당근마켓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채팅에서 개인 연락처 공유가 금지되면, 경고 알림을 보내는 등 주의를 당부해왔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하는 통화 기능으로 서비스 이용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도 한걸음 더 다가갈 예정이다. 당근채팅 통화 기능은 거래약속 설정 후 이용할 수 있다. 먼저 거래약속은 당근채팅 입력창에 ‘+버튼을 누른 후 거래약속을 누르면 설정할 수 있다. 생성된 거래약속 메시지는 채팅으로 거래 상대방에게도 공유되며 약속 시간 5분 전부터 2시간 전까지 미리 알림 서비스도 제공한다.



통화 기능은 먼저 설정한 거래 약속 1시간 전후로 최대 2시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당근채팅 입력창에 ‘+버튼을 누른 후 통화를 누르거나, 채팅창 오른쪽 상단에 ‘:’ 을 누른 후 통화하기를 누르면 된다. 채팅 화면 우측 상단에 전화기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도

된다. 전화기 모양 아이콘은 2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통화 연결음으로는 “당근마켓 이웃에게 전화를 연결하고 있어요”라는 안내 음성이나, 전화를 받는 상대방에게도 “당근마켓 이웃에게 걸려 온 전화예요”라는 안내 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화면에 보이는 안심번호로는 거래 약속 한 시간 후로만 통화를 할 수 있다. 이후에는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 김민정기자

‘백신 기대감’ 광주·전남 중소기업 전망 4개월 연속 ↑

5월 경기전망 전년 동월대비 '16.5포인트' 상승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됐던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체감경기 전망지수가 백신접종 개시 등에 힘입어 4개월 연속 반등했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발표한 5월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황전망 건강도 지수(SBHI)는 전월(92.5)보다 1.2포인트 상승한 93.7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 하던 작년 같은 기간(77.2)과 비교하면 16.5포인트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83.7)보다는 10포인트 높았다. 전망지수 반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본격화 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심리와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등 정부 방역조치 성공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부터 22일 까지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234개사(제조업 103개사·비제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SBHI는 100이상이면 경기 전망을 긍정적으로 본 업체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는 업체보다 더 많다는 뜻이고,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뜻한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88.8) 대비 3.7포인트 상승한 92.5, 전남은 전월(98.2)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95.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제조업은 전월(95.2)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97.1, 비제조업은 전월(89.8) 대비 0.7포인트 오른 90.5를 보였다.

4월 조사된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영애로(복수응답)는 ‘내수부진(62.8%)’, ‘인건비 상승(54.4%)’, ‘업체간 과당경쟁(49.3%)’, ‘원자재가격 상승(35.3%)’ 순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평균가동률은 69.9%로 전월(68.8%)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지역별로 광주는 전월 대비 1.9%포인트 상승한 70.1%, 전남은 0.1%포인트 하락한 69.6%로 조사됐다.

최윤희기자

백화점의 완벽한 귀환...3월 매출 폭증

구매 단가는 비슷하데 구매 건수 급증

그만큼 방문객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

백화점이 부활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급격한 매출 감소로 고전하던 백화점 업계는 코로나 피로감에 더해 급격히 올라간 기온이 시너지를 내며 코로나 사태 이전 매출을 회복했다. 유통업계는 백신 접종자가 점차 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백화점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3월 유통업체 매출 동향’을 보면 지난 3월 백화점 매출은 1년 전보다 77.6% 올랐다. 모든 부문에서 급격한 매출 상승이 발생했다.

아동·스포츠 부문이 109.8%로 가장 많이 올랐다. 명품이 포함된 해외 유명 브랜드 부문이 89%로 뒤를 이었다.

여성 캐주얼(84.5%), 여성 정장(79.8%), 남성 의류(78.2%), 가정용품(60.4%), 잡화(55.4%) 등 매출이 오르지 않은 부문이 없다.

업계는 백화점의 급격한 매출 상승이 구매 단가의 상승이 아닌 방문객 증가의 결과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올해 3월 백화점 방문객 1인당 구매 단가는 10만 8876원으로 1년 전(10만 2783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구매 건수는 작년 대비 67.7% 증가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신 접종자가 늘고, 기온이 더 올라가며, 휴가 시즌이 다가올수록 백화점 매출 역시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중국산이 한국산 둔갑 막아야”

농진청, 배 수출 활성화 온라인 화상 포럼 개최

농촌진흥청은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한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9일 온라인 화상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중국산 배의 한국산 둔갑 방지 대책 및 배 신제품 보급 확대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다.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주요 배 수출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가 한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신제품 배의 수출 확대를 위한 분야별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은 원산지 둔갑 문제의 주요 해결 방안으로 ▲수출 통합 조직

공통브랜드 주요 수출국 상표권 등록 ▲원산지 확인 QR코드 제작 ▲한국산 배 온라인 홍보 마케팅 ▲수출국 정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를 강조했다.

배 신제품 보급 확대 방안으로는 ▲안정적인 생산 기술 개발 ▲농가 현장 기술지원 확대 ▲소비자별, 시기별 맞춤형 홍보 ▲신제품 시범 수출 및 소비자 평가 확대에 대한 의견이 논의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배는 신선 농산물 수출 5위 품목으로 작년 7170만 달러를 수출했으며 수출 1억 달러 달



세계 가장 근접한 과수 품목"이라며 “앞으로 배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위해 수출 현장의 어려움 해소와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관계 기관과 협업·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